



천주교벤투라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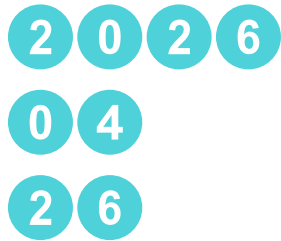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603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부활 제4주일 성소주일



주보

입당송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2,14ㄱ.36-41

화답송 시편 23(22),1-3ㄱ.3ㄴㄷ-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베드로 1서 2,20ㄴ-25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 10,1-1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 하셨네. 알렐루야.



신앙에 대한 궁금증 풀기

Q 어릴 적 성당을 잘 다니던 아들이 커서는 신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믿음이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을 흠송 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더 큰 인내가 필요하기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랑하십시오”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왜 사랑을 강요하느냐?”라고 되물을지 모릅니다. 현대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하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한 걸 왜 굳이 말로 하나요” 라고 되물을지 모릅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과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사람과 사귀느냐는 별개의 문제지요. 하느님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대신해줄 수는 없는 거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는 있지만 사귀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목마름을 자주 청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그리워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하기까지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내적 공허함을 더 깊이 느껴야 하는 지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가도록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찻찻하지 않삽나이다”

(임성근 신부 / 우동성당 부주임 pantaleon@naver.com)

기도지향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4월	목주기도	성경읽기	평일미사	희생, 봉사, 자선
1주	642	15	14	26
2주	440	7	2	6
3주	1,135	6	1	19
4주				
합계	2,217	28	17	51

교황님 4월 지향 기도

<위기를 겪는 사제들>

성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제들이 필요한 동반을 얻고, 공동체가 이해와 기도로 그들에게 힘을 보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 주일미사 집전

오늘 주일미사를 집전해주신 LA교구 HOLY TRINITY 본당 정 브라이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주일미사 집전을 위해 벤투라 본당을 방문해주신 신부님을 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평일미사 안내

5월 1일(금) 09시 30분 미사 있습니다.

3. 위령기도 안내

4월 20일(월)에 선종하신 정희자님 (박기연 에스더의 모친, 앤디 대건안드레아의 장모)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하계 캠핑 신청

- 일시 : 7월 11일(토)12:00 -13일(월) 12:00
- 장소 : 벤투라 or 추마시 레이크
- 신청 : 사목회 서기(앤디 대건 안드레아)

5가정 이상 신청시 캠핑을 진행합니다. 신청가구가 적을시에는 7월 12일(주일) 당일에만 야외미사를 진행합니다.

5. 성경공부 그룹나눔

- 일시: 사순시기 부터 월 1회, 조별 시간에 맞춤
- 장소: 성당 or 조의 가정
- 조편성: 서로 시간이 맞는 인원 중심으로 2-5명

6.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셀(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 09:30 미사, "셀(Cell)"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매주 주일 12:00 "셀(Cell)" 기도 모임도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 봉헌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성경읽기의 경우 20분 단위로(읽기 or 구절 묵상) 1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8. 일회용품 절감 위한 개인 텀블러 사용

한해 종이컵 사용 비용만으로 200불이 지출이 되고 있어, 일회용품 절감이 필요하오니 개인 텀블러를 성당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 이용 바랍니다.

9.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4월 26일 부활 제4주일	5월 3일 부활 제5주일
제1독서 : 박태진 콜베 제2독서 : 박미라 요세피나	제1독서 : 정석건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해주영 프란치스코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평일미사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4월 5일	\$500	부활성야 \$370 부활대축일 \$700		\$1,570	35/42		35/42
4월 12일	\$700	\$285 공소 \$70	\$200	\$1,255	25/2	5	30/2
4월 19일	\$1,200	\$300	\$500	\$2,000	27		27
4월 26일							
합계	\$2,400	\$1,725	\$700	\$4,825			

교무금 현황 김용진(5,6), 김정숙(4), 정석건(3,4)

기부금/기타 봉헌 테이블 기부금 : \$300(문기선), 감사헌금 : \$200(한혜정)